



ODE가 새롭게 선보이는 스피커 브랜드 에스텔론Estelon

스피커는 소리의 질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디오 시스템 구성에서도 절대적 기준이 된다.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편집 매장 오드ODE에서 에스텔론이란 새로운 라인을 선보이는데 맑고 깨끗한 소리를 원하는 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하이엔드 오디오, 특히 스피커업계에는 ‘강자’가 넘쳐난다. 그간 여러 수입사를 통해 한국에 유통되다가 최근 오드와 독점 계약을 맺은 에스텔론Estelon은 핀란드와 맞닿은 에스토니아가 ‘국가대표’로 인정, 후원하는 브랜드다. 창립 연도는 2010년. 세계적 오디오 명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역사지만 탁월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기로 빠르게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201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를 준비하며 에스텔론과 함께 스페셜 스피커 에디션을 선보였다. 오드와의 계약을 위해 내한한 에스텔론의 창립자 알프레드 바실코프Alfred Vassilkov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롤스로이스 차체에 사용하는 특수 페인트를 스피커 표면에 바르고, 크롬이 들어가는 유닛은 약 3일간 수작업으로 광택을 냈다. 투톤의



1 ODE와의 국내 공식 론칭을 위해 내한한 에스텔론의 창립자 알프레드 바실코프와 CEO인 알리사 바실코프.
2 작은 청음실을 위해 설계된 XB 라인. 대리석 기반의 합성 재료로 만들었으며 선명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그레이 컬러를 적용했으며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포함해 최고의 부품을 사용했다. 롤스로이스 고객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하더라. ‘You got detail’. 오랜 노고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판매가는 250만 유로였다.”

에스텔론은 현재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 주요 모델 8개를 수출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을 견인한 것은 기술력. 하이엔드 스피커는 보통 위쪽부터 고역, 중역, 저역을 담당하는 유닛이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에스텔론의 제품은 고역과 중역의 유닛 위치를 바꿔 트위터가 중간에 자리한다.

학창 시절부터 오디오를 해체, 조합하다 아예 창업을 한 알프레드는 “중역을 담당하는 미드레인지를 바닥에서 최대한 멀리 배치해 바닥에서 발생하는 중저역대의 공진과 난반사를 현저히 줄였다”고 말했다. 조각 작품처럼 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은 에스텔론의 또 다른 경쟁력. 거대한 호리병을 연상시키는데 과학적 설계를 통해 공진과 난반사를 바닥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잡아준다. 에스텔론이 추구하는 음향은 깨끗한 사운드. 정밀한 저음을 구현하는 원뿔형 알루미늄 8인치 우퍼를 포함해 모델에 따라 최적의 유닛을 적용, 편안하고 생생한 소리를 들려준다.

글 정성갑 기자 | 사진 김규한기자 | 취재 협조 ODE